

학습주제: 2. 유교: 순자

원전의 핵심 문장 읽기

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양이 없어 질투와 분쟁이 생긴다.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가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이를 따르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예와 형식이 사라지게 된다. 인간이 본성의 욕망과 감정을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분수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와 교화가 있어야 하고, 질서는 그 다음에 잡힌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양이 없어 질투와 분쟁이 생긴다.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눈과 귀가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이를 따르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예와 형식이 사라지게 된다. 인간이 본성의 욕망과 감정을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분수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와 교화가 있어야 하고, 질서는 그다음에 잡힌다.³⁴

순자는 이것을 교정하는 나무를 대서 구부러진 나무를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아직 거친 쇳덩이를 풀무질하여 달군 다음 예리한 칼로 만드는데 비유한다. 순자에게 인간의 본성이란 그것이 누구(이)든, 예를 들어 군자나 소인이든, 도둑이든 폭군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본래는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순자 또한 공자나 맹자처럼 누구나 후천적인 인위人爲를 통한 올바른 노력을 지속적으로 쌓아 가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³⁶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구분, 분별)가 없으면 임금과 신하의 구분도 없게 된다. 신하를 통제할 임금이 없다면, 아랫사람들을 통제할 윗 사람도 없게 된다. 또 모든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는데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은 예를 만들어 그 경계를 명확히 했던 것이다.)³⁸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사람이 고립되어 서로 돕지 않으면 궁핍해진다. 그렇지만 무리를 지어 살더라도 경계가 없으면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고, 지식이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위협하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덕^德으로써 정치를 하면, 노인과 약한 사람도 걱정하지 않게 되고, 강자라고 해서 경계를 지키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³⁹